

전남, 교통사고·화재·감염병 '최악'

안전 수준·의식 5등급 '전국 최하위' ... 범죄는 '1등급' 안전 광주, 교통사고·범죄·생활안전 4등급...화재·자살 '3등급'

전남 지역의 교통사고, 화재, 감염병 안전 수준과 안전의식이 전국 최하위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시·도 및 시·군·구별 지역안전지수'를 공표했다.

지역안전지수는 2024년 재난·안전 통계를 기준으로 지역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진단·분석한 지표다. 국가기관 통계를 활용해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6개 분야별 안전수준을 측정한 결과를 1~5등급으로 나눠 표시한 것으로, 1등급에 가까울수록 안전하다는 의미다.

예컨대 교통사고 안전수준의 경우, 인구 1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와 재난 악자수, 의료보장 사업장수, 교통단속 CCTV대수, 지자체의 교통안전 환경개선사업 지출액, 운전자안전별

트착용률, 음주운전경험률, 교통법규위반건수 등을 종합해서 산정하는 식이다.

광역지자체별 지수를 보면, 전남은 교통사고·화재·감염병 3개 분야에서 최하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생활안전 관련 119 구급건수와 재난악자 수, AED(자동제세동기) 설치대수, 안전신문고 신고건수 등을 종합한 생활안전 분야에서는 3등급을 받았다. 범죄 분야는 1등급으로 범죄 안전 지대라는 평가를 받았다.

광주의 경우 교통사고, 범죄, 생활안전 분야에서 모두 4등급을 받는 데 그쳤으며, 화재, 자살, 감염병 분야는 3등급에 머물렀다.

기초지자체별로 보면, 교통사고 분야에서 광주시 광산·동구가 4등급을 받아 교통 위험 지역으로 지목됐다. 전남에서는 나주·순천시, 신안·영암·장흥·강진·고흥·장성·담양군이 4등급을 받

았다.

화재 분야에서는 장흥·구례군이 5등급을 받아 가장 취약한 곳으로 꼽혔다. 나주·여수시와 장성·담양·곡성·영암·신안·진도·고흥군 등도 4등급에 머물렀다.

범죄 분야에서는 목포가 5등급을 받아 광주·전남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광주시 서·동구를 비롯해 여수·순천시, 영광·무안·영암군이 4등급을 받아 범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안전 분야에서는 광주시 동·서·광산구가 5등급의 최하위 성적을 받았고, 광주시 북구와 나주시, 보성·곡성군은 4등급에 그쳤다.

감염병 분야에서는 광주시 북구와 신안·진도·해남·강진·장흥군이 무더기로 5등급을 받았으며, 나주시와 무안·곡성·담양·구례·고흥·완도군은 4등급을 받았다.

행안부는 "안전지수가 낮은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위험 요소 분석과 맞춤형 대책 수립 등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제주항공 참사 때 속도 보니 참담

시속 232km로 둔덕과 충돌…4t 화물차에 치이는 충격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시 사고 항공기가 둔덕과 충돌한 순간의 속도가 시속 232km에 달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사고 당시 인체에 가해지는 충돌가속도는 최대 60G(Gravity·중력가속도 단위) 수준으로 추산돼, 피해자들은 4t이 넘는 대형 화물차에 치이는 수준의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계산됐다.

12일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준호(광주 북구갑) 의원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로부터 제출받은 항공기 충돌 가속도 검토 분석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사조위는 영상 분석 등을 토대로 지점별 평균 속도를 계산한 결과 동체착륙 지점(a지점)에서는 시속 374km, 활주 마찰 시작 지점(s지점)에서는 시속 374km였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후 충돌 직전 지점(e지점)까지 시속 280km로 속도를 줄였고, 충돌 지점(c지점)에서는 시속 232km의 속도를 보인 것으로 계산됐다.

각 지점은 동체착륙을 시작한 a지점을 0초로 봤을 때 각각 s지점 15초, e지점 25초 이후, c지점 30초 직전에 해당하는 것이다. 사조위는 충돌 시 인체에 전달되는 충격을 2가지 상황으로 나눠 가정했다. 실제 충돌은 지면 특성, 충돌 각도, 구조 변형 등 변수가 많아 단일 조건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반영해 조건을 달리 적용한 것이다.

우선 첫 번째로 가정한 상황은, 지면의 '유효 질량'과 기체 질량의 비율을 0.5 이상으로 가정하고, 충돌이 지속되는 시간을 최대 0.1초로 놓고 계산했다. 지면의 유효 질량은 충돌 순간 실제로 충돌에

참여해 힘을 주고받는 '지면의 일부'를 가상의 질량으로 환산한 값이다.

이 조건에서 사조위는 충돌 당시 인체에 가해지는 가속도가 최소 20G 이상이었을 것으로 예측했다.

두 번째로 가정한 상황은 충돌 직전 속도와 충돌 직후 속도의 비율을 0.1~0.4로 두고, 충돌 지속시간을 0.1초로 가정해 계산했다. 충돌 전후 속도 차가 더 크게 나타나는 상황을 상정한 것으로, 이 경우 충돌 당시 인체에 가해지는 충격 가속도는 40~60G 수준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됐다고 사조위는 분석했다.

60G의 충격이 순간적으로 가해질 경우, 몸무게 70kg의 성인 남성이 4.2t 무게의 충격을 받게 되는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준호 의원은 "사고 당시 충돌 속도와 가속도 분석자료를 확보해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일부 내용을 관공적으로 공개한다"면서도 "자료의 해석은 전문가의 영역이고 사고원인도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조사와 추후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사고조사를 통해 참사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24년 12월 29일 태국 스완나푸 국제공항에서 이룩한 제주항공 여객기는 무안국제공항에 착륙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탑승자 181명 중 179명이 사망했다.

당시 여객기는 착륙 과정에서 기어 장치가 내려지지 않은 상태로 동체 착륙 활주 중 활주로를 초과해 방위각(로컬라이저) 시설물과 충돌하며 화재가 발생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옥외 간판 안전 점검

지난 주말 경기지역에서 강풍에 떨어진 간판으로 인해 인명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12일 광주시 북구청 안전총괄과 직원과 옥외광고협회원들이 풍향동의 한 건물 옥상에서 간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점검을 하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

여수서 K-POP 열고 '섬박람회' 띄운다

정부 '한류종합행사' 선정...장흥 물축제와 국비 5억6000만원 확보

올해 열린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를 앞두고 개최 분위기를 띠울 대규모 한류(K-POP) 공연이 여수에서 펼쳐진다. 장흥 물축제와 K-POP 콘서트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9일 '2026 대형 한류종합행사(K-POP 공연) 사업'을 공모한 결과, 전남에서는 여수시와 장흥군이 선정됐다. 이들 지역에서 열리는 행사를 위해 국비 5억6000만 원이 지원된다.

이번 공모사업은 K-POP 등 대형 공연·행사 등으로 한류 콘텐츠의 다양성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

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는 것으로, 전국에서 총 5개 지자체(여수·장흥·충주·보령·함안)가 선정됐다.

여수에서는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개최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D-50 K-POP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을 비롯, '글로벌 디지털 응복합 아날로그 콘서트', '낭만 버스킹 인(in) 여수' 등 프로그램 등이 열려 관광객들을 불러모으게 된다.

여수시의 경우 세계섬박람회와 연계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전략, 민·관 협력 체계, 지속 가능한 콘텐츠 운영계획 등으로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문제부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장흥군은 18회 이상 물축제를 운영해 온 경험, 물축제와 한류 콘텐츠를 결합한 차별화 등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면서 글로벌 축제로 도약할 수 있는 실행 계획을 제시했다.

전남도 오미경 관광과장은 "정부의 대형한류행사 공모 사업에 유일하게 전남 2개 시·군이 선정된 것은 전남 관광콘텐츠의 경쟁력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대형 메가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유치해 국내외 관광객을 불어들여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광 활성화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자기 기자 dok2000@kwangju.co.kr

현혈 공공...광주·전남 혈액 수급 '빨간불'

10~20대 급감...3월 8일까지 현혈 릴레이 캠페인

매서운 한파에 현혈 심리마저 얼어붙으면서 광주·전남 지역 의료 현장의 혈액 수급에 '빨간불'이 켜졌다.

동절기 계절적 요인에 더해 대입 제도 개편과 저출산 여파로 그간 현혈의 주축이었던 10대 학생층의 참여가 급감하면서 그 반자리를 4050 중장년층이 험憾하게 메우는 '현혈 인구 지형 변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12일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에 따르면 이날 기준 지역 혈액 보유량은 2.8일분까지 떨어져 수급 위기 단계인 '주의' 경보가 발령됐다.

혈액 보유량은 5일분 미만일 때 '관심', 3일분 미만 '주의', 2일분 미만 '경계', 1일분 미만 '심각' 등 4단계로 판별된다. '주의' 단계에 진입하면 의료기관에 공급할 수 있는 혈액량이 제한돼 위급하지 않은 수술 일정은 조정이 불가피해지는 등 진료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통상 겨울철은 추운 날씨로 인한 외부 활동 위축, 각급 학교의 방학, 군부대 휴한기 훈련 등이 겹쳐 현혈자가 감소하는 대표적인 '현혈 보릿고개'라

는 것이 혈액원의 설명이다.

과거 현혈의 절대다수를 차지했던 1020 세대의 비중도 줄어들고 있다.

2004년 전체 현혈자의 84%(16만 6004명)를 차지했던 10~20대 비중은 2024년 58%(11만 1839명)로 급락했다. 반면 같은 기간 40~50대 중장년층 비중은 4%(8538명)에서 25.4%(4만 9038명)로 6배 이상 급증하며 지역 혈액 수급의 '소방수' 역할을 하고 있다.

2019년 5만 6384명이었던 광주·전남 고교생 현혈자의 경우 지난해 말(12월 15일 기준) 2만 5226명으로 반토막 났다. 혈액원은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개인 봉사활동 실적이 대입에 반영되지 않게 되면서, 학생들이 현혈에 참여할 유인이 사라졌기 때문에 분석하고 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은 오는 3월 8일까지 70일간 3만 3000명 참여를 목표로 '2026년 동절기 사랑의 현혈 릴레이' 캠페인을 전개하며 시민들의 동참을 독려하고 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72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6]

For the Lord
주님을 위하여
To the World
세상을 향하여

www.kwangshin.ac.kr

2026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편입생모집

대학원 추가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대학원	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
		성경연구학과(Th.M.)	○
		신학과(Ph.D.)	○
		성경연구학과(Th.D.)	○
일반대학원	박사	사회복지학과(D.S.W.)	○
		코칭심리학과(D.Psy.)	○
		통합예술심리치료학과(D.C.S.)	○
		심리디지털융합학과(D.Psy.)	○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유아교육학과(M.Ed.)	○
		상담심리치료학과(M.A.)	○
		가족상담청소년학과(M.A.)	○
		코칭심리학과(M.Psy.)	○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통합예술심리치료학과(M.A.)	○
		재활심리치료학과(M.A.)	○
		사회복지학과(M.S.W.)	○○
		평생교육학과(M.Ed.)	○○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육학과(M.Ed.)	○
		휴먼서비스교육학과(M.Ed.)	○
		실용음악학과(M.A.)	○
음악대학원	석사		

■ 전형일정

- 원서접수: 2026. 1. 20.(화) ~ 27.(화)
- 전형일: 2026. 1. 29.(목)

학부 편입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학과	모집인원	
		정원내	정원 외
인문	신학과	○○	○
	한국어교육학과	○	
사회	복지상담융합학부	○○	○
	유아교육과	○	○
예능	음악학부	○○	

■ 전형일정

- 원서접수: 2026. 1. 5.(월) ~ 19.(월)
- 전형일: 2026. 1. 22.(목) 오후 2시

믿음이 있는 대학·믿음을 주는 대학 —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벽지로 36

입학문의 ▶ 학부 062) 605-1114 / 대학원 062) 605-1115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주역을 바로 당신입니다.